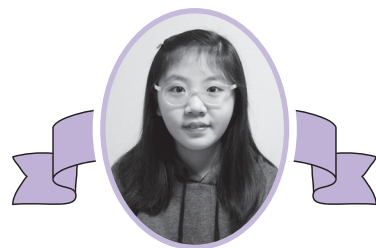


동상





평화를 사랑한 가야인의 고장, 김해!



정한울 | 김해 울산초등학교 5학년

“우와~ 멋지다! 아빠, 저 들판 끝에 바다가 보여요!” 내 두발 아래 네모반듯한 황금빛 들판이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었다. 분산성에서 내려다본 김해 시가지는 파란 하늘과 익어가는 황금빛 벼이삭이 어우러져 그림처럼 보였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이곳 김해로 이사 오기 전까지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아이였다. 아빠의 발령으로 갑자기 이사 오게 되면서 정든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하철도 다니지 않는 시골로 이사한다는 것이 너무 싫었다. 그렇게 이성한 김해는 좀처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다 역사를 배우기 시작했고 고대시대 ‘가야’라는 나라가 이곳 김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모님께서 주말에 근처 역사유적지 탐방을 하자고 하셔서 따라 나섰었다. 그렇게 시작한 김해의 시간여행지가 벌써 10곳을 넘기며, 나는 이 고장에 폭 빠지게 되었다.

가야의 땅 김해는 낙동강을 끼고 서쪽에 위치해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발달해 예부터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다고 한다. 다양성이 존재했던 평화의 나라 가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다문화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아빠, 수로왕과 부인 허황옥이 다문화 가족의 시작이 아니었을까요?” 나의 질문에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수로왕릉과 수로왕비를 돌아보고 김해국립박물관까지 돌아보니 나도 모르게 가야의 박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뿌듯한 마음이 든다. 살아있는 생태계의 박물관 화포천 생태습지공원과 고분박물관까지 가야의 도시 김해는 볼거리로 가득하다. 특히 분청도자 박물관과 바로 옆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을 보면 과거와 현대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에너지를 내는 일인지 알 수 있다.

수로왕이 세운 가야는 함께 사이좋게 공존하는 것을 사랑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폴리스처럼 여러 가야가 함께 어우러져 살았다. 그 옛날 삼국시대 세 나라는 서로 뺏기 위해 싸웠지만 가야는 함께하는 공존을 추구했다고 한다. 나는 이 ‘함께’라는 말이 참 좋았다. 작은 가야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힘을 합쳐 뭉쳤고 철을 다루는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뿐 아니라 우륵의 가야금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다고 한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가야의 토기는 다양성을 보여준다. 여섯 연맹의 개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각기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 분산성에서 바라본 김해시가지는 수천 년을 이어온 역사의 도시 속에 오늘날의 시간이 웅기종기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었다. 내가 바라본 김해의 현재 모습이 어찌면 수로왕이 원했던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520년간 가야인들이 이곳 김해에서 평화의 시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제는 지하철이 없어도 괜찮다. 한적하게 오래전 가야인들을 만나는 지금의 시간이 즐겁고 좋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에 내가 살고 있는 게 이제는 좋다. 우리나라는 어느 한 곳도 버릴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화를 사랑한 가야인들의 고장 김해가 지금보다 더 멋진 역사도시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고장이 되기를 소망해본다.